

슈퍼 투수 vs 괴물 타자... MVP 경쟁



한화 폰세

kt 안현민

KBO리그 팬들은 2025년 역대급 투수와 타자를 눈으로 직접 보는 축복을 받았다. 투수 쪽에서는 코디 폰세(한화 이글스)가 역사를 써 내려가고, 안현민(kt wiz)은 역대 가장 무서운 '신인 타자'로 9개 구단에 '공포의 존재'가 됐다.

이들은 리그 최우수선수(MVP) 경쟁을 사실상 일찌감치 2과전으로 만들었다. 폰세는 33년 만에 전반기를 1위로 마친 한화의 상승세를 이끈 슈퍼 에이스다. 올 시즌 19경기에 등판, 12승 무패, 121% 이닝 169탈삼진 27볼넷 평균자책점 1.85로 무패 행진을 이어 가고 있다.

KBO리그가 투수에게 주는 공식 시상 부문인 다승과 평균자책점과 승률(1.000), 탈삼진을 합쳐 4개 부문 1위를 달린다. 역대 KBO리그에서 이 4개 부문 1위를 차지한 선수는 1989~1991년 타이거즈 소속의 선동열과 2011년 윤석민(전 KIA 타이거즈) 둘뿐이다. 탈삼진 부문 시상은 1993년부터 시작해

'대체 불가' 역사 쓰는 폰세

19경기 출격 12승... 무패 질주 다승·ERA 등 4개 부문 선두 한화 정규리그 1위 땀 따는 당사

공식적인 평균자책점다승·승률·탈삼진 4관왕은 윤석민만 성공했다. 이 밖에도 폰세는 팀 동료 류현진이 보유하고 있던 단일 경기 정규이닝 최다 탈삼진 17개를 넘어서는 18개를 달성하고, 12경기 만에 100탈삼진을 돌파해 류현진이 보유하고 있던 이 부문 기록과 타이틀을 이뤘다.

또한 그는 개막 후 선발 12연승을 질주해 2003년 정민태(전 현대 유니콘스)와 2017년 헨터 노에시(전 KIA)가 세운 이 부문 기록 14연승에 단 2승만을 남겼다. 폰세의 활약 속에 한화가 정규리그 1위를 굳힌다면, MVP 표심은 한화의 선두 정복을 진두지휘한 폰세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크다.



타자 쪽에서는 안현민이 '규격 외 괴물'이다. 류현진이 2006년 달성한 신인상과 MVP 동시 석권을 노린다. 개막 후 한 달이 지나서야 본격적으로 1군에서 뛰기 시작한 안현민은 아직 규정 타석을 채우지 못했음에도 각종 누적 수치에서 리그 최상급 활약을 보여준다. 안현민의 시즌 성적은 타율 0.366(227타수 83안타), 17홈런, 57타점, OPS(출루율+장타율) 1.137이다. 볼넷 43개를 골라내는 동안 삼진은 37개만 당했을 정도로 선구안도 좋다. 전반기 안현민이 무서운 괴력을 앞세워

거침 없는 괴력신인 안현민

역대 가장 가공할 '새내기 타자' 신인상·MVP 동시 석권 가능성 불방망이에 선구안도 정상급

장타 행진을 벌일 때 많은 전문가는 여름에 체력이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성적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안현민은 이러한 예상을 비웃기도 하듯 7월 들어 더욱 뜨거운 타격감을 뽐낸다. 그의 월간 타율은 0.512(41타수 21안타)이며, 홈런 4개에 타점은 11개를 곁들였다. 이제 안현민과 상대해야 하는 구단들의 공략법은 '장타 맞을 바에 볼넷으로 내보내기'가 됐다. 덕분에 안현민은 7월 들어 볼넷 13개를 골랐고, 삼진은 단 3개만 당했다. 그래서 안현민의 이달 출루율은 0.636, OPS는 1.490이 된다.

말 그대로 야구 게임에서나 볼 수 있는 수치를 현실에서 실현한다. 현재 275타석을 소화한 안현민은 팀이 93경기를 치른 22일까지 규정 타석(288타석)에 13번이 부족하다. 다음 달 그가 규정타석을 채우는 순간, 타율(0.366)과 출루율(0.476), 장타율(0.661)까지 타격 3관왕은 떼어놓은 당사이다.

한 달이나 늦게 시즌을 시작했음에도 안현민은 스포츠투아이 기준 대체 선수 대비 승리 기여(WAR)에서 야수 1위를 달린다. WAR은 비율 성격이 아닌 누적 성격이며, 경기에 많이 출전할수록 더 높은 수치를 쌓을 수 있다. 안현민의 WAR은 5.58로 이 부문 2위 최형우(KIA 타이거즈)의 4.05보다 훨씬 높다. 1위 안현민과 2위 최형우의 WAR 격차는 리그 WAR 17위 김현수(LG 트윈스 2.54)와 최형우의 격차(1.51)보다 크다. 스카이데일리·연합뉴스

드디어 토트넘 유니폼 양민혁 U-21팀 선발



“양민혁이 우리 유니폼을 입고 처음 출전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의 '젊은 괴' 양민혁(19)이 구단 산하 21세 이하(U-21)팀의 프리시즌 경기를 통해 처음으로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실전을 뛰었다.

양민혁은 22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브리즈번 로드에서 열린 레이턴 오리엔트(3부리그)와의 프리시즌 경기에서 토트넘 U-21팀의 왼쪽 날개로 선발 출전해 전반전만 소화하고 후반 시작과 함께 교체됐다.

2024년 7월 토트넘 입단을 확정된 양민혁은 지난해 12월 K리그 강원FC를 떠나 토트넘에 합류하며 빅리그 데뷔를 준비했다.

하지만 양민혁은 토트넘에서 한 경기도 뛰지 못하고 올해 1월 챔피언십(2부) 퀸스파크 레인저스(QPR)로 임대됐다. 양민혁은 QPR에서 정규리그 14경기를 뛰면서 2골을 터뜨리는 활약을 펼친 뒤 임대 생활을 마치고 토트넘으로 복귀해 지난 6일 시작된 프리시즌 훈련부터 합류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이날 토트넘 U-21팀은 레이턴과의 프리시즌 경기인 '저스틴 에든버러(JE3) 파운테이션 트로피'를 치렀고, 양민혁은 U-21팀의 일원으로 출전했다.

토트넘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날 경기에서 양민혁이 우리 유니폼을 입고 처음으로 그라운드에 나섰다”며 “19세의 한국 국가대표 선수인 양민혁은 전반전에 왼쪽 측면 공격수로 출전했다”고 소개했다. 경기에서 양민혁은 공격 포인트를 따내지 못했고, 토트넘 U-21팀은 1-3으로 패했다.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U-21팀 경기에 출전한 양민혁. 토트넘 홈페이지 캡처

Inhancer Plus™

관절영양제의 혁명

인한서 플러스

글루코사민 + 콘드로이틴 + MSM + 브로멜라인 + 레시틴

오프라인 전용

온라인 전용

관절 관리는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슬개골과 고관절의 염증